

 <b>해양수산부</b>	<b>보 도 자 료</b>		
	<b>배포 일시</b>	<b>2018. 5. 29.(화)</b> <b>총 3매(본문 2, 참고 1)</b>	
<b>담당 부서</b>	<b>해양개발과</b>	<b>담당 자</b>	• 과장 허만욱, 팀장 신선호, 사무관 이경환, 주무관 김정희 • ☎ (044) 200-5240, 6181, 6182, 6184
	<b>극지연구소 경제협력부</b>	<b>담당 자</b>	• 부장 신형철, 팀장 이지영, 행정원 강민구 • ☎ (032) 770-8430, 8630, 8631
<b>보 도 일 시</b>		2018년 5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미생’ 이 체험한 남극을 전합니다

### - 웹툰작가 윤태호, 탐험가 제임스 후퍼 등이 참여하는 남극포럼 개최 -

세상의 끝, 남극에서 써내려온 활동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과학과 문화예술, 국제관계 등 다방면에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제23회 바다의 날과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을 맞이하여 31일(목) 오후 2시부터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남극포럼’을 개최한다.

남극포럼은 그간 접해보지 못했던 남극의 색다른 모습과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되었으며, 남극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이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먼저, 기조연설자인 스티븐 차운(Steven Chown) 남극과학연구위원회 의장이 인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인류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남극을 어떻게 보호·관리해야하는지를 강연한다. 이어, 이원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첨단기술\*로 엿보는 펭귄의 사생활’이라는 주제로 남극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펭귄들의 생활상을 소개한다.

\*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에 카메라 및 GPS 기능이 있는 소형장치를 부착하여 펭귄의 이동경로 등 생활상을 확인

남북극을 무동력으로 종주한 탐험가 제임스 후퍼(James Hooper) 씨는 극지를 체험한 후 과학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웹툰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와 영화평론가 허남웅 씨는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 남극을 다룬다. 특히 윤 작가는 '남극에서 만난 미생, 그 소박함과 위대함'이라는 주제로 2013년 세종과학기지에 방문했던 경험을 나누고, 허남웅 씨는 '남극의 여름', '남극일기' 등 영화·다큐멘터리 속에 등장하는 남극의 모습을 소개할 예정이다.

본 강연 이후에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남극을 경험한 과학자와 일반인 체험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원탁 토의를 통해 남극활동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함께 모색하고, 관객들과 함께 OX퀴즈를 풀며 남극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극지영화관, 사진전 등 부대행사를 비롯해 남극에서 가져온 빙하를 맛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0일(수) 12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극지연구소 누리집(www.kopri.re.kr), 극지정보포털(극지이야기, www.koreapolarportal.or.kr),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누리집(www.kosap.or.kr)을 통해 가능하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남극포럼 행사를 통해 멀게만 여겨졌던 남극에 친근함을 느끼고, 남극이 가지는 무한한 미래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 Antarctic Forum 2018

# 남극포럼

2018. 5. 31.(목) |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

나랑 같이 <남극포럼>가자!

시 간	내 용
14:00~14:30	개회식
<b>[1부] 가까워지는 남극</b>	
14:30~14:55	[기조강연] 인간이 지구 운명을 바꾸는 시대, 남극을 어떻게 볼까? Steven Chown 남극과학위원회 의장
14:55~15:20	[강연 1] 첨단기술로 엿보는 펭귄의 사생활 이원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15:20~15:45	[강연 2] 극지탐험가가 과학자로 다시 나는 여정 James Hooper 극지 탐험가
15:45~16:00	휴 식
<b>[2부] 함께 가는 남극</b>	
16:00~16:25	[강연 3] 일탈을 꿈꾸는 작가의 남극 체험기 윤태호 '미생' 작가
16:25~16:50	[강연 4] 남극, 감정의 극단이 모인 공간 허남웅 영화평론가
16:50~17:30	[라운드 테이블] 내가 본 남극, 내가 그리는 남극

주최 해양수산부

주관 KOPRI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등록페이지 바로가기 ▶